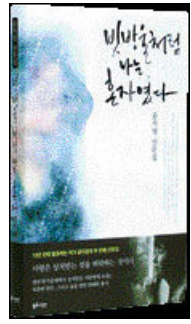


10년만에 산문집 '빛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 낸 공지영 씨

“이젠 사랑의 상처 받아들일 수 있어”



“빛방울이 모여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 사람들이 가진 모든 외로움과 상처의 빛방울들이 화해와 용서의 바다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현재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과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등 장편 소설 두 권을 동시에 랭크시킨 인기 작가 공지영(43)씨가 ‘상처없는 영혼’(푸른 숲 펄냄) 이후 10년 만에 두 번째 산문집을 냈다.

‘빛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황금나침반 펄냄)는 공지영이 펜을 놓고 집적하던 지난 2002~2003년 사이 시를 읽으며 스스로를 위안하다 떠오른 단상들을 일기 형식으로 정리한 ‘글 모음’이다.

공지영은 8일 본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글을 쓰면서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며 “제 글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책을 내면서 돌아보니 글 쓰기가말로 남이 아니라 바로 작가 자신의 고통이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책에는 기형도의 ‘빈 집’, 김남주의 ‘철창에 기대어’, 자크 프레베르의 ‘이 사랑’, 루미의 ‘플레방아처럼 울어라’ 등 39편의 시가 인용돼 있다. 책의 제목은 이라크 저항시인 압둘 와합 알바야티의 ‘외로움’이라는 시에서 인용한 문구다.



공지영은 자신이 인용한 시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시와 같은’ 문장들을 만들어 내 잔잔한 감동을 준다. 책 속에는 공지영이 작가로서 느껴왔던 삶의 근원적 외로움과 개인적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 뿐 아니라 이들을 넘어 사랑과 용서에 이르는 길이 담담하게 적혀 있다. 사실 공지영

지난 1985년 무크지 ‘문학의 시대’를 통해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삶에 힘겨워 하는 독자들에게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글을 읽고 힘든 과정을 더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겠지요.”

“나를 키운 건 8할이 상처”였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공지영에게 이 책은 ‘공지영식 상처 치유 메뉴얼’인 셈이다. 그래서 책 속의 글에는 이젠 성숙함대로 성숙해버린 한 여인의 삶의 깊이가 그대로 느껴진다.

“나이를 먹어 좋은 일이 많습디다. 조금 무뎠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와도 언젠가는, 설사 조금 오래 걸려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었습디다.”(‘생명의 찬가’ 중에서)

공지영은 “군부독재 하에서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했던 경험 등은 돌이켜 보면 시대의 운명이기도 하다”며 “작가로서 나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글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의무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외로움과 상처의 빛방울들이 화해와 용서의 바다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길...”

정자경 판소리 춘향가 발표회

11일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

정자경(사진) 판소리 춘향가 II 발표회가 11일 오후 7시 광주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정 씨는 이번 공연에서 단가 ‘운담풍경’을 비롯, ‘소녀 향단이 문안이오’ ‘아까 꿈에’ ‘얼씨구나 절씨구’ 등 판소리 춘향가의 유명 대목을 들려준다. 고수는 이대휴씨.

전남대학교에서 전인삼·성애순 선생을 사사한 정씨는 카자흐스탄 등에서 초청공연 등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광주 가야금연주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재욱 씨 초청 할리우드 영상효과 워크숍

할리우드 영화의 화려한 시각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1~12일 오후 2시 광주영상예술센터 세미나실에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욱(사진)씨를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

화제의 영화 ‘킹콩’을 비롯, ‘월드 오브 투모로우’ ‘썬 시티’ 등 할리우드 영화에서 시각 효과를 담당했던 박씨는 이번 강연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 영화 ‘킹콩’의 제작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씨는 현재 영화 ‘슈퍼맨’ 작업을 진행중이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도 참여했다. 062-654-3624

/곽정경기자 ksj@kwangju.co.kr



최병식 교수 ‘글로벌 시대 한국미술’ 특강

평론과 미술품 감정 등 미술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병식 경희대학교수(미술평론가·사진)가 오는 12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특강한다.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이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는 기획전 ‘물처럼 바람처럼-한국화 3인전’의 부대행사로 마련한 이 행사에서 최 교수는 ‘글로벌 시대,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최 교수는 미술평론, 미술사, 미술경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희대학교 부설 현대미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그 때 그 합성’ 부활하는 오월

광주민중항쟁 26주기 문화·예술행사 다채

광주민중항쟁 26주기를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큰 주제 아래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특히 6월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6·15 남북공동선언 6월 기념행사를 홍보하는 장도 함께 마련된다. <표 참조>

▲전시행사=30일까지 5·18기념문화관에서는 ‘홍성담 5월 판화전’이 열린다.

13일부터 25일까지 옛 전남도청에서는 다양한 전시들이 진행된다. 조각가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지점과 지향전’, 시인 작가 청소년들이 펍스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글씨·문양·그림·카툰 등 다양한 시각 매체를 전시하는 사이버전 ‘쌍방소통전’, ‘5·18민중항쟁 아카이브 전’ 등을 만날 수 있다.

▲제2회 광주음악제=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안숙선·김용우씨 등 국악인과 가수 한대수·이상은·바비킴·안치환 등이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던 영화 ‘왕의 남자’에 등장했던 줄타기 공연팀도 참가한다.

5·18 민중항쟁 26주년 문화행사

날 짜	행 사 명	행사장소
13~6·20	만정결개 설치전	망월동
13~24	2006 오월전 ‘지점과 지향’	구 전남도청
12~25	여섯 개의 시선	“
13~26	5·18민중항쟁 아카이브 전	“
13~27	오월판화전, 사진전	“
22~27	오월 문화제	“
13~6·15	6·15 사진전시회-‘오월에서 통일로 달려오 달려!’	망월동, 금남로, 광천터미널
20	5월 평화문화제	상무지구
20	제4회 전국위호대회	5·18국립묘지
26	오월Y시민주권-문화와 5·18(백용준열사 추모제)	광주 YWCA
10~20	이동국 ‘다람쥐 나라’ 공연 및 판화작품 전시	북구 일곡도서관
20	제3회 5·18 청소년 문화제-RED FESTA	금남로 일대
18	제2회 광주음악제	도청 앞 특별무대
1~30	홍성담 5월 판화전	5·18 기념문화관

▲청소년 문화제 ‘레드 페스타(RED FESTA)’=‘우리가 오월이다’를 주제로 20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다. 5월 당시를 체험해 보는 민주마당, 공동체 놀이·공동디카사진전 등으로 구성된 나눔마당 등이 열리며 델리스파이스·주석·나비효과 등이 출연하는 록 페스티벌이 분위기를 돋운다.

▲5·18평화문화제=‘반값다 문화야’라는 주제로 20일 오후 7시 상무지구 일원에서 열린다. 평화열린 오카리나 공

연, 손장갑 인형극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그밖에 아동극 ‘다람쥐 나라’와 판화나라 전시회가 10~20일까지 일곡도서관에서 열리며 망월동 집안로와 묘역 일대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제작한 결개와 만장 설치전이 펼쳐진다. 또 시극과 시음악 콘서트, 특별강연 및 작가와의 대화 ‘창’, 민족문화인 선언, 아시아문화인마당 등으로 구성된 문화행사도 열린다. http://518-26.org.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남구민의날 기념 현대작가 초대전

21일까지 남구 문예회관

광주 남구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가 주관하는 ‘제3회 구민의 날 기념 현대작가 초대전’이 21일까지 남구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해마다 남구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 지역 작가 26명이 참가한다.

참여 작가는 강남구, 강동권, 김해성, 김효삼, 박병주, 박용환, 유재용, 정삼성, 정성복, 정운화, 조윤성, 최병구, 최재영, 한희원, 황순철, 김승근, 박문수, 백현호,



최병구 작 ‘2006 봄의 향기’

이동환, 주재현, 하원현씨 등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귀일원 허브체험의 날 라벤더 축제

11일 복지관·카페 허브하우스

사회복지법인 귀일원에서 운영하는 귀일향기일곡터(대표 박은주)가 11일부터 13일까지 귀일원 복지관과 카페 허브 하우스에서 ‘제4회 귀일원 허브체험의 날-라벤더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귀일향기일곡터의 장애인 근로자 20여 명이 참여한다.

무료 허브차 시음,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허브 비누 만들기, 허브 화분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 수익금은 귀일향기일곡터 상품 생산을 위한 비용과 장애인 임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62-654-7002

/곽정경기자 ksj@kwangju.co.kr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침대

시몬스 매트리스의 다양한 모델과 특징을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편안한 수면을 위한 고품질 매트리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TOUCH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의 다양한 사무용 의자와 책상을 소개하는 광고입니다. ergonomic 디자인과 내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